

‘오징어 게임’ 에미를 뒤흔다...여우단역상 등 4관왕

이유미, 여우단역상 “얼른 사랑하고파”
아시아 국제 배우 최초 에미상 역사 써

배우 이유미(28)가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 시상식에서 여우단역상(BEST DRAMA GUEST ACTRESS)을 받았다. 아시아 국제 배우가 에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건 역대 최하다. 이와 함께 ‘오징어 게임’은 특수효과·스턴트퍼포먼스·미술 부문에서도 수상에 성공하며 후보에 오른 7개 부문에서 4관왕에 오르는 역사를 썼다.

이유미는 4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제74회 크리에이티브 아트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Creative Arts Primetime Emmy Awards)에서 여우단역상을 받았다. 이유미는 ‘석세션’의 호프 데이비스, ‘모닝쇼’의 마사 게이 하든, ‘유포리아’의 마사 켈리, ‘석세션’의 사나 레이선과 해리엇 윌터를 제치고 수상에 성공했다. 이유미는 시상식 무대에 올라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에미 식 측에 감사하고 ‘오징어 게임’ 팀에 고맙다”고 했다. 이어 영어로 “정말 행복하

다. 고맙다”고 인사했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 백스태이지 인터뷰에선 “너무 행복하고 믿겨지지 않는다. 얼른 주변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했다.

이유미는 ‘오징어 게임’에서 240분 참가자 ‘지영’ 역을 맡아 배우 정호연과 호흡을 맞추며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간부’ 에피소드에서 정호연이 연기한 ‘새벽’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지영의 모습을 순도 높은 감정 연기로 표현해 호평받았다.

이유미는 아시아 국제 배우 최초로 에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배우가 됐다. 앞서 리즈 아메드, 대런 크리스 등 아시아계 배우들이 이 시상식에서 수상한 적이 있지만 이들의 국적은 모두 영국 또는 미국이었다. 4차례 에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샌드라 오 역시 한국계이지만 국적은 캐나다이다. 이유미는 2009년 광고 모델로 연에게 데뷔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각종 영화·드라마 단역을

거쳤고, 연기력을 인정받아 최근 극중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최근 영화 ‘인질’(2021), 드라마 ‘뎀보걸즈’(2018) ‘오징어 게임’(2021) ‘지금 우리 학교는’(2022) 등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줘 인지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오징어 게임’이 다관왕에 오르면서(BEST SPECIAL VISUAL EFFECTS IN A SINGLE EPISODE) 부문과 스텐트 퍼포먼스(BEST STUNT PERFORMANCE), 미술(BEST PRODUCTION DESIGN FOR A NARRATIVE CONTEMPORARY PROGRAM) 부문에서도 수상에 성공하며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드라마 최초로 에미상을 받은 작품이 됐다. 이로써 ‘오징어 게임’은 이날 후보에 오른 여우단역·촬영·주제가·편집·미술·특수효과·스턴트퍼포먼스 부문에서 4관왕에 올랐다.

이날 ‘오징어 게임’이 다관왕에 오르면서 오는 12일 열리는 에미 주요 부문 시상식에서 더 많은 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The Academy of Television Arts & Sciences·ATAS)가 주최하는 에미 시상식은 시상 부문이 많아 세 차례로 나눠 시상식을 진행한다. 기술 부문은 ‘크리에이티브 아트’라는 이름을 더해 3일과



4일에 열리고, 작품·감독·극본과 남녀주연 상 등 주요 부문 시상식은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재·정호연·오영수·박해수와 황동혁 감독이 수상에 도전하게 된다.

개그우먼 오나미, 축구선수 박민과 백년가약

허경환 난입·조혜련 구두굽 부러져 폭소

개그우먼 오나미(38)가 9월의 신부가 됐다. 오나미는 4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전 축구선수 박민(36)과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7월 7개월째 열애 중이라고 밝힌 지 1년 여 만이다. 주례는 SBS TV 예능물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너의) FC 개넌츠 감독 김병지가 맡았다. 골때너에 함께 출연 중인 그룹 ‘슈퍼주니어’ 규현과 개그우먼 조혜련이 축가를 불렀다. 사회는 개그맨 박성광과 박영진이 봤다.

개그맨 동료와 선·후배들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14년 지기인 개그우먼 김민경이 결혼식 도우미로 나섰다. 열애 중인 김준호·김지민 커플을 비롯해 임하룡, 김영철, 유민상, 김지선, 안영미, 신봉선, 장도연, 이은형, 김시덕, 조윤호, 송영길, 배우 백봉기 등이 화객으로 참석했다.

개그맨 허경환은 결혼식 난입 상황극을 선보였다. 쌍둥이 개그맨 이상호·이상민에게 끌려 나가 웃음을 줬다. 오나미와 허경환은 JTBC 예능물 ‘최고의 사랑’에서 가장 커플로 출연했다. 이날 김영철은 인스타그램에 “나미는 결국 입장하면서 웃었다. 울어도 예쁘다”며 “허경환은 신랑입장 전 폰트? 난입? 상황극? 결혼식 정말 #안벨런스 #울다가웃었다”고 남겼다. “헐리우드 셀럽 결혼식보다 재미있고 신나고 몽글하고 좋다. 화객되고 울고 웃고, 몽글한 결혼식 최고. 나미야 정말 축하하고 사랑한다. 신랑도 멋있다”고 덧붙였다.

조혜련은 축가로 자신의 히트곡 ‘아나까나’를 부르다 구두굽이 부러졌다.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진에서 부러진 구두를 들고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예쁜 한쌍 박민·오나미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라며 “2세는 풋살팀 인원으로 6명 파이팅”이라고 했다.

오나미는 7월 13일 방송한 골때너에서 결혼 소식을 알렸다. “시즌2 첫 경기 전날 소개팅 장소에서 프리포즈를 받았다. 꽃으로 꾸며 놔더라, 결혼해줄래?”라고 해 눈물이 나더라. 타이밍이 중요해 바로 ‘그래’라고 했다”며 “소개팅으로 만나 딱 1년만에 프리포즈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오나미는 골때너 경기에서 프리포즈 보답으로 골 때리머니도 선보였다. (방송을) 같이 봤다. 그날 혼인신고서와 축구공을 들고 ‘나랑 결혼해줄래?’라고 하니 너무 좋아했다”고 귀띔했다. 11~12일 오후 10시 방송하는 TV조선 추석특집 ‘조선의 사랑꾼’에서 결혼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나미는 2008년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 ‘개승자’, JTBC ‘최고의 사랑’ 등에서 활약했다. 박민은 2009년 경남 FC에 입단했다. 광주·강원 FC·FC 안양을 거쳐 부천 FC 1995 수비수로 활약했다. 중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다.

제이비, 새 앨범 콘셉트 포토 공개

오는 21일, 각종 음원 사이트 통해 발매



그룹 ‘갓세븐’ 멤버 겸 가수 제이비(GAY B)가 신보의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 카덴차레코즈는 5일 공식 SNS를 통해 제이비의 2번째 EP ‘비 유어 셀프(Be Yourself)’ 콘셉트 포토 ‘Be’ 버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제이비는 노란색 소파에 기대 체 나른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다른 것에서는 인형과 마주앉아 장난기 가득한 소년의 모습을 보여줬다.

제이비의 새 EP ‘비 유어 셀프’는 지난달 공개한 싱글 ‘흔들의자(Rocking Chair)’ 이후 한 달 만에 발표하는 신보다.

‘비 유어 셀프’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유롭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다.

‘비 유어 셀프’는 2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박은빈, 데뷔 26년만 팬미팅...“오랜 시간 고대해왔던 순간”

팬들과 특별한 추억 쌓아

배우 박은빈이 데뷔 26년 만에 연 첫 팬미팅을 성료했다.

박은빈은 지난 3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2022 박은빈 1st 팬미팅 은빈 노트 : 빈(銀)칸’을 개최하고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박은빈은 “나 그대위해 시 한편을 쓰겠어”를 부르며 무대에 등장해 “이 곡은 팬미팅에서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준비한 곡이다.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팬미팅을 시작하는 기대와 설렘을 전했다.

박경림의 센스 넘치는 사회로 진행된 팬미팅은 평소 박은빈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시작으로 입덕 계기, 팬들의 고민 등 박은빈이 팬들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은빈이는 팬들이 궁금하다!’까지 다양한 코너들로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박은빈의 선택을 팬들이 맞추는 ‘단체 밸런스 게임’을 함께 하며 팬들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교감했다.

이후 2부에는 배우 박은빈에 대한 Q&A는 물론, 팬들이 직접 뽑은 박은빈 출연 작품의 명

장면, 명대사 베스트 3를 공개했다. 그뿐 아니라 공연 시작 전, 팬들에게 직접 받은 은빈이들(작품 캐릭터)에게 궁금한 질문에 박은빈이 답을 하며 궁금증을 풀어주었고, 질문에 뽑힌 팬들에게 직접 준비한 각 캐릭터별 애장품을 아낌없이 선물했다.

이에 팬들 역시 팬미팅 다음 날인 박은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팬들의 사랑을 담은 생일 축하 영상과 ‘박은빈과 함께하는 순간 행복으로 채워지는 빈칸’이라는 문구가 담긴 슬로건 이벤트를 본 박은빈은 예상치 못한 팬들의 선물에 울컥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끝으로 박은빈은 “진심으로 감사하다. 오랜 시간 고대해왔던 순간이라 사실 긴장보다는 새로운 설렘이 가득했다. 이 시간을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보낸 이 시간이 참나였을지라도 행복한 기억으로 오래오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은빈 노트 뒤에 부채를 단 만큼 앞으로도 고심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고민하고 돌아오겠다.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나의 마음을 담아” 팬들과 함께 부르며 마무리했다.

강호동, 6년만에 KBS 복귀...추석특집 ‘라운드테이블’



MC 강호동이 KBS에 돌아온다. ‘우리동네 예체능’(2013-2016) 이후 6년 여만이다.

단독 MC 맡아 능수능란한 입담·특유의 에너지 드러낼 예정

5일 KBS에 따르면, 강호동은 2TV 추석특집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다. 단독 MC를 맡아 능수능란한 입담과 특유의 에너지를 드러낼 예정이다.

라운드 테이블은 스타 6명이 서로를 지목, 명곡을 이어 부르는 쇼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판정단은 각계각층의 14명으로 구성하며, 그룹 ‘오마이걸’ 효정이 대표를

맡는다.

총 2부작으로 11일 오후 9시 20분, 12일 오후 8시 30분 전파를 탄다. 1부에는 전 야구선수 홍성흔, 탤런트 김기두, 개그맨 허경환, 강재준, 크리에이터 김계란, 모델 정혁이 출연한다. 2부에는 탤런트 정이랑, 개그우먼 이은지, 댄서 아이기, 모델송해나, 기상캐스터 강아랑, 국가대표 역도선수 김수현이 등장한다.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박진우 찰떡호흡...“한국판 셜록과 왓슨”

오는 23일 오후 10시 SBS 첫 방송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배우 남궁민, 박진우가 한국판 셜록과 왓슨으로 활약한다.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최창환 연출 김재원, 신중훈)는 수임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이 백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 남궁민, 김지은, 최태훈, 이덕화, 박진우, 공민정 등이 출연한다.

이와 함께 5일 남궁민과 박진우의 투샷이 공개됐다. 극중 남궁민은 천 원짜리 한 장으로 만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법조 히어로 ‘천지훈’ 역을, 박진우는 천변을 만나 월급은 고사하고 제 돈 쓰고 제 차 몰면서 천변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는 법률 사무소 ‘사무장’ 역을 맡았다.

먼저 남궁민이 고급스러운 쓰리피츠 수트와 세련된 펌 헤어로 영국 신사 같은 아우라를 뽐내고 있는 반면 박진우는 동네 아저씨 같은 차림새로 푸근한 매력을 자랑한다. 또 ‘복사·불



여닝가릴 한 듯 꼭 닮은 포즈에서는 두 사람의 찰떡 같은 호흡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23일 오후 10시 첫 방송.